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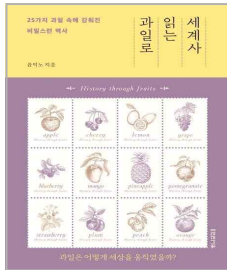


2024년 조치원 복숭아 축제 연계 프로그램

강 의 계 획 서

강좌명	알고 보니 보물이었네 - 복숭아와 여름 과일 인문학 -		강사명	윤덕노 작가
일시	24. 7. 27.(토) 10:30~12:00		진행시간	90분
장소	조치원읍 복کم 1층 소공연장 (조치원읍 대첩로 76)		수강대상	조치원읍 등 세종시민
강의 소개				
강의 목표	1. 복숭아, 수박, 참외 등 우리에게 친숙한 여름 과일의 역사 2. 세 과일이 한반도 및 세계 전파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 3. 역사 속에서 세 과일이 우리의 문화, 풍속 등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개			
준비 사항				
강사 (교육도구)	프레젠테이션 도구	학습자 (재료비 등)	없음	
세부 교육 내용				
1. 복숭아에 담긴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풀이 왜 태몽으로 복숭아 꿈을 꿀까? 옛날에는 왜 병문안 갈 때 복숭아 통조림을 갖고 갔을까? 삼국지에서 유비, 관우, 장비는 왜 하필 복숭아 밭에서 도원결의를 맺었을까? 손오공은 왜 복숭아를 훔쳤을까? 왜 하필 복숭아밭 무릉도원을 파라다이스로 여겼을까? 프랑스 납작 복숭아는 왜 맛이 있을까? 등				
2. 수박과 참외에 담긴 뜻밖의 역사와 풍속, 의미 등 여름 과일 인문학 수박이 외래 수입 과일? 수박은 언제 우리나라에 전해졌을까? 그 의미는? 세종대왕은 왜 유독 수박 도둑을 그토록 모질게 벌했을까? 왜 참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 먹을까? 조선 왕실 의장대가 참외 깃발을 들고 행진한 까닭은? 고려 청자는 왜 참외 모양일까?				
참고 사항				
윤덕노 작가		<과일로 읽는 세계사> 등 저서		
				
신문기자를 거쳐 음식 문화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. 25년 신문기자 생활을 하며 여러 나라 요리에 대한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음식 이야기를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해 왔다.		<음식으로 읽는 로마사>. <음식으로 읽는 중국사>. <전쟁사에서 건진 별미들>, <음식이 상식이다>, <하루 한입 세계사>, <붕어빵에도 족보가 있다>, <차이나 쇼크> 외 다수		